

### III. 빌해의 대외 관계

1. 신라와의 관계
2. 당과의 관계
3. 일본과의 관계

### III. 밸해의 대외 관계

#### 1. 신라와의 관계

밸해와 신라의 관계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해서 남북의 교섭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피지배 주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남북왕조가 교섭했다고 하는 기록이 《三國史記》에 분명히 남아 있고, 밸해에서 신라로 통하는 「新羅道」<sup>1)</sup>로서 신라泉井郡(咸南 德源)으로부터 밸해의 棚城府(吉林省 豊春)까지 39개의 驛이<sup>2)</sup>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상에 전하는 몇 차례의 남북교섭은 신라 왕실의 정변 이후였던가, 아니면 밸해가 외세로부터 위협을 받아 왕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다.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남북교섭에 관한 두 차례의 기록은 金富軾 등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정하였기에 남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북국의 교섭은 기록상에 나타나는 접촉의 횟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남북국의 문제는 서로 교섭을 하였는지의 여부보다는, 양국이 어떠한 이유로 교섭을 시도하였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국의 관계는 교섭보다 대립의 시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록들을 사실대로 믿어야 할지 아니면 기록의 미비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교섭 못지않게 대립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쟁도 역시 ‘적극 교섭’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삼국이 한강유역 쟁탈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였던 사실을 분쟁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독자적인

1) 《新唐書》卷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2) 《三國史記》卷 37, 志 6, 地理 4, 高句麗.

역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삼국의 항쟁을 민족통일 과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인다면 남북국의 대립관계 역시 한국의 역사상에서 남북국시대를 설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229년간 지속되었던 남북국의 관계는 교섭과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대개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발해가 건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20여 년간의 남북교섭기(698~713), ② 발해의 정복사업 추진기로서 발해의 제2대 武王과 제3대 文王의 집권 중기까지 60여 년간의 남북대립기(713~785), ③ 신라 元聖王과 憲德王의 정변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형성된 30여 년간의 남북교섭기(785~818), ④ 발해국의 고구려 땅 회복정책과 신라와 당의 밀착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남북대립기(818~905), ⑤ 발해 멸망기의 남북교섭기(905~926)가 그것이다.<sup>3)</sup>

### 1) 발해 건국기의 남북교섭

신라와 발해의 첫 접촉은 발해가 왕실을 개창한 지 2년째가 되던 高王(大祚榮) 2년(700)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 崔致遠이 唐昭宗에게 보낸 글에서 확인된다. 즉 그는 소종에게 보낸 〈발해가 신라보다 위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글(謝不許北國居上表)〉에서 발해에 관하여 “그들이 처음 거처할 고을을 세우고 와서 인접하기를 청하였기에 그 추장 대조영에게 비로소 신라의 제5품 大阿湏의 벼슬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발해가 건국한 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7세기 말 건국기를 전후하여 발해는 당으로부터 심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발해는 돌궐과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당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구사하였다. (동)돌궐은 630년 당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흩어졌으나, 682년부터 다시 일어나 당의 위협적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696년 당의 王孝傑 등이 돌궐을 치다가 대패하였다든지, 698년 狄仁傑이 돌궐을 쳤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럴 즈음에 당의 회유

3)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신서원, 1994), 95~103쪽.

와 군사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옛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운 발해는 돌궐에 먼저 사신을 보내어 당에 대한 공동 전선을 모색하였다. 이어 발해는 신라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과거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였던 것과 같은 또 다른 공격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발해 사신은 대조영이 신라로부터 제5품 대아찬의 벼슬을 받는 외교적 수모를 당하면 서도 외교적 실리를 찾고자 하였다.

발해 건국기의 대외교섭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신라는 발해왕 대조영에게 신라의 제5관등인 대아찬을 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명분을 유지하였고, 발해는 그들이 우려하였던 신라와 당의 접근이 현실화되지 않음으로써 새 왕조 건설의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남북국의 첫 교섭은 양국이 서로 당과의 관계에서 의존이 아닌 자주적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발해 왕권확립기의 남북대립

발해와 신라의 교섭 분위기는 발해 고왕의 집권 중반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대조영 집권 말기부터 발해와 신라는 대립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신라가 聖德王 12년(713)에 발해와의 접경지인 開城에 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적 분위기는 발해의 왕권이 확립되는 제2대 무왕(大武藝) 때에 이르러서 더욱 굳어졌다. 무왕의 대내외정책은 옛 고구려 영토의 회복을 의식한 때문이었는지 매우 강경하였다. 주변 여러 종족들을 병합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 영토에 대한 회복 의지도 강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신라가 성덕왕 20년에 강릉 지방의 장정 2천 명을 징발하여 북쪽 경계에 긴 성을 쌓기도 하는 등 발해 와의 군사적 대결을 의식한 축성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발해와 신라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계기는 무왕 仁安 14년(732)에 있었던 당나라 공격에 신라가 개입한 사건에서 비롯한다.<sup>4)</sup> 발해와 당은 발해 건국 과정에서부터 대립적이었다. 즉 당은 李楷固를 시켜 요하를 건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대조영을 공격하였다가 天門嶺에서 패배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양국관계는 발해의 고구려 영토 회복정책과 신라와 발해의 대립관계가 심화되면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발해가 당의 登州를 공격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당이 발해를 견제하기 위하여 黑水靺鞨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였던 데에 있다. 즉 오랫동안 돌궐의 간섭을 받아오던 흑수말갈이 돌궐의 세력 약화를 틈타 당에 접근하여, 당의 흑수주 설치를 허락하고 長史라는 감독 관리까지 맞아들였다. 이러한 양측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발해 무왕은 흑수말갈의 정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의 동생 大門藝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하였다. 당에서 宿衛 하였던 적이 있는 대문예는 발해의 흑수말갈 공격이 자칫 당의 공격을 불러들여 발해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흑수말갈의 정복을 반대하였다. 그의 이러한 반대는 형 무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그가 결국 당나라로 망명하고, 발해가 당을 공격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발해는 무왕 인안 14년 9월 張文休 등을 해상으로 보내어 당의 등주(山東省 모평현)와 萊州(산동성 청주)를 공격하였으며, 육로로는 요서지방의 馬都山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등주를 공격한 장문휴는 등주자사 韋俊을 죽이고 그 곳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당은 장군 蓋福順과 발해에서 망명한 대문예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는 한편, 당에 와 있던 신라인 金思蘭을 귀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치도록 요청하였다.

신라는 당의 요구에 응하여 군대를 발해(말갈)의 남쪽 국경지역에 파견하였으나, 때마침 내린 폭설로 산길이 막혀 죽은 병사들이 과반수나 되어 다시 돌아왔다.<sup>5)</sup> 사실 일기상의 이유만으로 죽은 자가 그렇게 많았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당나라에 있던 신라 지식인들의 태도에서도 남북국의 대립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성덕왕의 사촌 동생으로 성덕왕 25년(726)에 신년하례 사신으로 당에 갔다가 숙위로 머물러 있던 金忠信의

4) 韓圭哲, 『위의 책』, 179~190쪽.

5)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32년.

발언이 그 좋은 예이다. 그는 무왕 인안 14년 발해와 당이 전쟁을 시작하자 발해 토벌을 위해 신라가 끝까지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부추기면서, 그러한 명령을 자신을 통하여 신라왕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 玄宗에게 간청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발해에 관하여 “兵馬를 내어 말갈(발해)을 쳐 없애자”라고 하였으며, “흉악한 도적(발해)”, “준동하는 저 오랑캐(발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아무튼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흑수말갈문 제였지만, 더 근본적 원인은 신라와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근거로는 신라가 당의 청병요청에 응하여 발해를 공격한 것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발해를 독자적으로 공격하려 하였고, 이 사건 이후 발해와 당의 관계보다 발해와 신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신라와 당은 매우 우호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삼국민의 당 축출전쟁으로 인하여 신라와 당의 관계는 적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당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이후부터 당은 비로소 신라의 濱江(大同江) 이남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정식으로 인정하였으며, 신라 역시 당에 謝恩使를 파견하는 등 신라와 당의 친선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남북국 사이에서 이 사건은 발해와 신라의 관계가 보다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라와 발해가 대립하였던 또 다른 시기는 발해와 일본이 신라를 협공하려 했던 발해 3대 문왕(大欽茂) 때였다. 문왕은 무왕 대무예의 둘째 아들로서 737년에 왕위에 올라 무왕의 대내외정책을 이어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발해의 정치제도를 정비하여 나갔다. 그 역시 왕위에 오르자 연호를 大興으로 고쳐 썼고, 수도를 敦化에서 黑龍江省 寧安縣의 東京城으로 옮겨 내정의 개혁을 꾀하였다. 이어 774년에는 연호를 대홍에서 實曆으로 고쳤다가 말년에 다시 대홍으로 바꾸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정치쇄신을 위하여 힘썼던 것 같으며, 특히 그의 말년(785~793)에 다시 혼춘의 東京 龍原府로 수도를 옮기는 등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초기 및 변영기의 문왕대에는 발해와 신라 그리고 당과의 관계가 무왕대와 같은 형태로 진전되지 않았다. 신라 경덕왕은 중국의 제도를 과감히 받

아들여 당지향적 내정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발해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북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변경지대에 大谷城(黃海道 平山郡) 등 14군 현을 설치하는 등 북변지역의 경영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에 발해는 당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공외교를 통하여 경제·문화적 이익을 취할 때로였다.

이러한 국제관계 아래에서 발해와 신라가 충돌할 뻔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신라 공격계획(758~764)에<sup>6)</sup> 발해가 끼어든 것이다. 물론 일본이 그들의 신라 공격에 발해를 끌어들이려고 하였던 것은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를 이용해 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742년과 753년 두 차례에 걸쳐 신라에 파견하였던 일본 사신이 신라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던 것을 수치로 여기고 신라 공격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의 이유이고 실질적으로는 藤原仲麻呂(惠美押勝)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밖으로 이전시키려는 전략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762년을 실행 시기로 정하고 수백 척의 배를 건조하였다고 한다. 이 때 일본은 753년 신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 갔던 小野田守를 발해에 파견하여 발해의 측면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발해에서도 이에 동조하였다고 여겨진다. 발해의 揚承慶이 일본에 가서 융승한 대접을 받고 돌아 왔고, 그 이후에도 양국은 일본의 주도 아래 몇 차례의 교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발해의 신라 협공계획은 발해의 중도 포기와 安史의 亂(755~763)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동, 그리고 일본의 정세변화로 무산되었다. 이후 발해는 대일관계를 군사적인 면에서 정치·경제적 면으로 그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762년부터 일본에 보낸 사신들을 武官에서 文官으로 교체하였던 사실을<sup>7)</sup>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시의 국제정세의 변화 또한 발해의 신라 공격계획에 변동을 가져왔다. 즉 당에서 일어났던 안사의 난을

6) 《續日本紀》 권 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 9월 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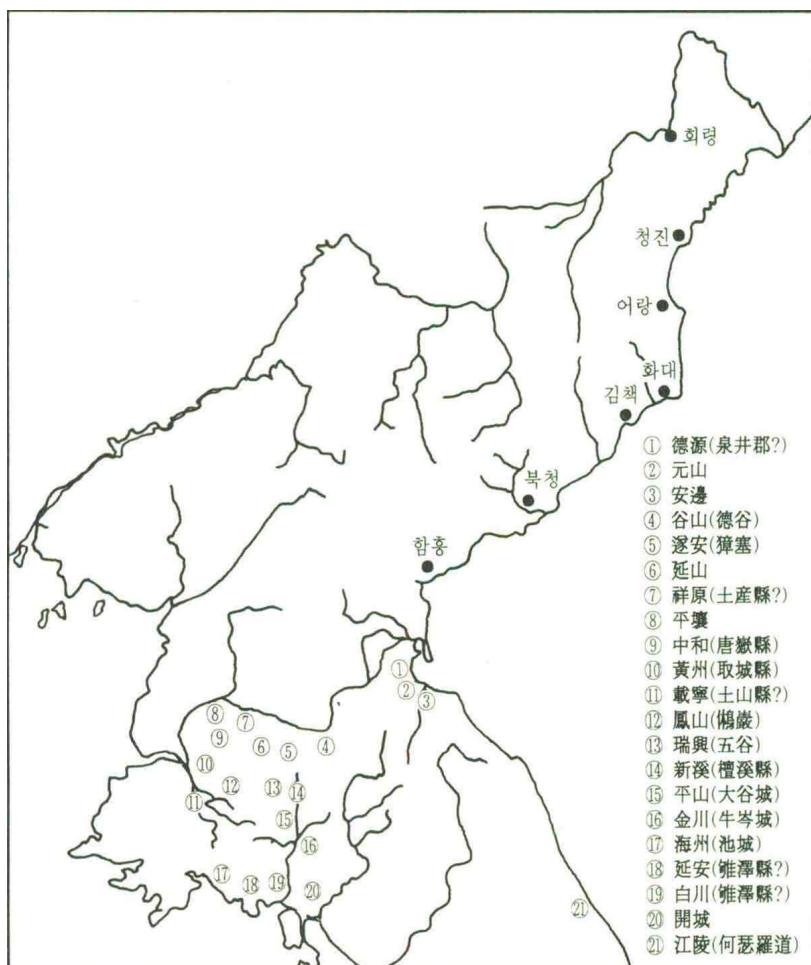
酒寄雅志,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1979), 17 ~20쪽 참조.

7) 《續日本紀》 권 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 및 권 24, 天平寶字 6년.

石井正敏, 〈初期日渤海における一問題—新羅征討計劃中止との關連をめぐって—〉(《史學論集 對外關係と政治文化》1, 吉川弘文館, 1974), 98~103쪽.

계기로 하여 발해와 당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발해와 신라와의 대립도 완화되어 갔다. 당은 안사의 난 이후 발해의 도움이 필요한 때문이었는지 문왕 26년에 발해왕을 ‘郡王’에서 ‘國王’으로 격상·인정하고 신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동아시아의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는 발해의 신라 공격을 그만두게 하였던 것이다.

남북국의 대립관계도



이러한 발해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내 신라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 계획의 중심인물이었던 혜미압승이 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에 대한 발해와의 협공계획은 이제 일본 단독으로 실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결국 이 계획은 764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혜미압승이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면서 무산되었던 것이다. 孝謙천황과 淳仁 천황 세력의 분열이 심화되고 순인천황의 막후 실력자로서 신라 정벌계획의 입안자이기도 했던 혜미압승이 반란을 일으켰다가(764) 敗死하면서,<sup>8)</sup> 신라 정벌계획은 무산되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 협공을 위한 일본과 발해의 이러한 군사적 연합계획이 결국 실천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신라와 발해의 대립구도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3) 신라 귀족항쟁기의 남북교섭

발해와 신라가 대립에서 교섭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은 신라 정계의 변동에서 비롯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① “원성왕 6년(790) 3월에 一吉浪 伯魚를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고 하고, 또 ② “현덕왕 4년(812) 9월에 級浪 崇正을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 북국이란 발해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기록은 신라에서 북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사신의 파견배경과 그 경과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북국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백어와 승정이 어떠한 인물이었고, 그들이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이들이 적어도 6두품 내지 진골 출신의 높은 신분이었음은 일길찬과 급찬이라는 그들의 관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신라 제37대 宣德王이 된 金良相과 제38대 원성왕이 된 金敬信은 혜공왕을 무력으로 제거하고 귀족항쟁기의 신라 하대를 열었던 장본인들이다. 특히 김경신은 왕위계승 제1후보자였던 金周元을 누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통치를 하지 않으

8) 岸俊男, 《藤原仲麻呂》(吉川弘文館, 1969), 382~417쪽.

면 안되었다. 자신의 지지세력이 없던 원성왕은 4년(788)에 讀書三品科라는 일종의 관리 채용시험제도를 채택하여 자신의 관료들을 선발해 보려 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신라 중대 이후 당으로부터 받아 왔던 책봉을 통한 외교적 승인절차도 없었으므로 더욱 불안한 정치를 해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 그의 정치적 도덕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성왕은 이제까지 대립적이었던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즉 내부의 불만과 정치적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발해에서 신라 사신이 어떠한 활약을 하였고 발해가 신라 사신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원성왕 6년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 발해는 문왕 大興 54년으로 문왕 치세의 말기였고, 수도도 발해국의 정치제도가 완성되었던 上京 龍泉府(흑룡강성 영안현)로부터 그보다 남쪽에 위치한 동경 용원부(吉林省 環春)로 옮겨 와서 5년 정도가 지난 후로써 발해도 '國人'으로 불리는 귀족들의 권력 항쟁기에 접어드는 시기였다. 그러나 발해는 동경 용원부시기에 李元泰를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하는(786~787) 등 불안정한 내정과는 달리 외교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신라의 최초 사신파견이 있었던 해는 바로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갔다 온 지 3년이 지난 때였다. 남북국의 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발해가 일본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려고 했던 사실은 양국이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발해의 외교가 궁극적으로는 당과의 관계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므로, 발해가 신라 사신을 결코 소홀히 대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그 동기야 어떻든 신라의 발해에 대한 사신파견 결과는 신라쪽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당시 남북국의 대립관계가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성왕이 신라 하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13년간이라는 장기집권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성왕 6년 이후 발해로의 사신 파견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교섭이 그 이후에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번의 교섭이 있었으나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단지 원성왕 이후의 외교가 당 및 일본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성왕대의 남북교섭 역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원성왕에 이어 즉위한 昭聖王이 1년 만에 죽자 신라 제40대 哀莊王이 즉위하였다(800). 그러나 애장왕대의 외교는 당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가 “(803년) 일본국과 사신을 교류하여 우호관계를 맺었다”고 전하는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라와 일본의 이러한 관계변화는 발해와 일본의 외교가 두절될 정도까지 되었다. 애장왕대 신라의 이와 같은 당·일본에 대한 이중외교는 당시의 남북교섭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특히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을 테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당에 접근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자기 조카였던 애장왕을 죽이고 즉위한 憲德王 金彥昇은 더욱 더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성왕대의 정치적 위기가 중대 세력과 하대 세력의 대결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현덕왕대의 분쟁은 하대 세력간의 다툼이었다. 이것은 원성왕이 겪었던 것 이상의 정치적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원성왕대와 같은 정치적 위기상황이 현덕왕대에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원성왕대와 차이가 있었다면 대외관계에서 애장왕대가 일본 위주였다면 현덕왕대는 당 위주의 외교였다는 점이다. 현덕왕은 그가 즉위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왕자 金憲章을 당에 보내어 금은불상과 불경 등을 전하였는가 하면, 당 역시 원성왕대와는 달리 현덕왕에 대하여 왕의 즉위와 동시에 외교적 책봉을 이행하였다. 이와 같은 현덕왕의 대당외교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 발해에 대한 사신파견이었다. 현덕왕의 발해에 대한 사신파견 역시 위기에 처했던 내정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덕왕이 외교를 통하여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 한 노력을 많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발해에 대한 기대가 신라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것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당시 발해는 내부적으로 귀족항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정에 있어서는 당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신라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처지에서 신라가 발해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은 그 만큼 원성왕계 내부의 저항이 커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 4) 발해의 영토확장과 신라·당 밀착기의 남북대립

신라 하대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진 남북국의 교섭은 발해의 영토확장과 신라와 당의 군사 협력을 계기로 하여 대립관계로 전환되었다. 10대 宣王 大仁秀의 즉위와 함께 발해는 고구려 영토 수복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해의 정책은 신라와 당에게 모두 위협적이었다. 즉 이러한 정세는 신라와 당에게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또 신라와 당의 밀착은 발해와 신라가 교섭을 단념하고 또다시 대립하도록 하였다.

발해와 신라의 관계가 교섭에서 대립으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은 신라와 당의 군사적 협력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신라의 도움이 필요하던 당은 그들 내부에서 일어난 李師道의 반란사건을 계기로 신라를 더욱 가까이하게 되었다. 즉 신라는 헌덕왕 11년(819) 당에서 일어났던 이사도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한 당의 지원요청을 받고 군대 3만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성덕왕 31년(732)에 발해의 공격을 받았던 당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사도는 본래 고구려계 사람으로서 고구려 멸망 후 당에 강제로 이주되었던 李正己의 손자였다. 따라서 당이 이사도의 반란을 토벌하는데 신라의 도움을 청하였던 것은 이사도를 발해계로 생각하여 남북국의 대립관계를 이용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신라와 당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 변하였다.

그러나 신라와 당의 밀착이 남북국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먼저 신라의 대내적인 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원성왕계의 반발을 견제하기 위하여 헌덕왕의 측근에 대거 등용하였던 무열왕계에 대한 대탄압이 이루어졌다. 신라와 당의 밀착 이후 무열왕계 金周元의 아들인 金憲昌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헌덕왕이 그 무리 239명을 처형한 것은(822), 그만큼 왕권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한다. 다음으로 신라의 대외관계에서 보자면, 신라가 중대 성덕왕 이후와 같이 당과의 밀착을 추구함으로써 남북

의 관계는 대립적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신라는 헌덕왕 18년 (826) 1만여 명의 漢山 북쪽 주민들을 동원하여 발해와의 북쪽 경계에 긴 성을 쌓아 발해와의 대결을 각오하는 방향으로 외교노선을 전환하고 있었다. 신라와 당의 밀착은 결국 발해와의 대립관계를 심화시켰고, 내부 반대세력의 탄압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것이다.

신라와 발해가 대립적이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승려 圓仁이 쓴 《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가 당에 조공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구법활동을 하며 기록했던 4권의 기행문으로서, 838년 7월부터 847년 초겨울까지 9년 반 동안의 여행기록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신라인들이고 발해에 관한 기록도 있어 당시의 남북관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기행문은 신라인들이 8월 15일이 되어서 백 가지 음식을 차려 놓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춤과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는 사실과, 그러한 이유를 신라와 발해가 싸워서 신라가 이겼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신라 노승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sup>9)</sup> 원인의 이 기록이 839년에 나온 것이니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839년 이전에 신라와 발해는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신라의 어느 기록에도 양국간의 전쟁이나 신라의 승리 사실을 남기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신빙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sup>10)</sup> 아무튼 오늘날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의 기원을 발해와 신라의 대결에서 신라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데에서 유래할 수도 있다고 한 점은<sup>11)</sup> 주목하여 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국의 대립관계는 당에서 있었던 두 나라의 외교관과 유학생들의 경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치원의 〈謝不許北國居上表〉를 통해서 잘 알려진 신라와

9)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2, 開成 4년 8월 15일.

10) 이 기록을 당시의 신라인들이 고구려가 멸망할 때 신라와 고구려가 싸웠던 날을 신라와 발해가 싸운 것으로 착각하여 전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石井正敏, 〈朝鮮における渤海觀の變遷－新羅～李朝－〉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5, 1978; 임상선 편역,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0, 52쪽).

11)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5, 名日.

依田千百子, 〈秋夕考〉(《白初洪淳昶博士還暦紀念史學論叢》, 1977), 2~3쪽.

발해 사신의 자리다툼사건(席次爭長事件)도<sup>12)</sup> 그 한 예이다. 즉 大韓踏 4년(897)에 당에 사신으로 파견된 발해 왕자 大封裔가 당시 발해의 국세가 신라보다 강성함을 들어 발해가 신라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고 당 昭宗에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소종은 이것을 거절하고 신라 우선의 옛 관습대로 하였고, 이러한 소식에 접한 최치원이 당 소종에게 감사의 글을 보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외교적인 면에서 양국이 대립하고 있었던 하나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당이 외국인들을 위해 설치한 賓貢科 시험에서도 있었다. 875년 발해의 烏昭度가 신라의 李同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하자, 최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일국의 수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치욕스럽게 여겼다. 또한 906년에는 신라의 崔彥撝가 오소도의 아들인 烏光贊보다 상위에 합격하자, 당에 있던 오소도가 자기 아들의 순위를 최인위보다 올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던 적이 있었는데,<sup>13)</sup> 이러한 것은 모두 남북국의 대립의식에서 나왔던 사건이었다.

### 5) 발해 멸망기의 남북교섭

신라와 발해의 대립관계가 또다시 교섭의 분위기로 바뀐 시기는 발해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10세기 무렵이었다. 당시 남북국이 교섭하였음을 알려주는 《契丹國志》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발해국왕 大諲譏은 본래 奚 및 거란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그런데 (거란) 태조가 처음에 일어나 8부를 병탄하고 계속하여 군사로써 奚國을 병탄하자, 대인선은 이를 크게 두려워하여 은밀히 신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서로 돋기를 약속하였다. 태조가 이것을 알고 의논을 모았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契丹國志》권 1, 太祖).

12) 浜田耕策, 〈唐朝における渤海と新羅の争長事件〉(《末松保和頌壽紀念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1978).

임상선, 앞의 책, 264~265쪽.

13) 《高麗史》권 92, 列傳 5, 崔彥撝.

《崔文昌侯全集》文集 1, 狀,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與禮部裴尚書贊狀〉.  
金毓黻, 〈諸臣列傳〉(《渤海國志長編》권 10, 華文書局, 1934).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이 거란의 팽창을 두려워한 나머지 은밀히 신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구원을 요청하여 이것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新羅諸國’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발해의 사신 파견 대상국이 달라진다. 위에서 해석한 대로 ‘신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라고 한다면, 당시의 신라를 포함한 後梁 등이 될 것이며, ‘신라의 여러 나라’로 해석한다면, 신라를 비롯한 후삼국의 여러 나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해가 멸망의 위기에서 일차적으로 신라 등에 사신을 파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후량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던 대인선 6년(911)과 7년 경이었다.<sup>14)</sup> 이 때는 거란이 발해의 이웃 나라인 해국을 평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발해로서도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정세가 거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신라제국’이 거란을 의식하지 않고 쉽게 발해를 돋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발해는 계속되는 거란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파멸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그러자 발해는 신라를 포함해서 고려 및 후당 등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高麗史》에 전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발해유민이 대대적으로 고려로 망명해온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925년이었다는 것은 모두 당시의 이러한 정황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해의 은밀한 도움 요청을 받고 돋기를 약속하였던 신라제국이 발해를 돋지 않고 결국에는 거란을 도왔다고 한다.

(거란 태조는) 발해를 평정하고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것을) 알렸다. 갑오일 다시 (거란 태조는) 忽汗城에 행차하여 창고의 재물을 돌아 보고 (그를) 따랐던 신하들에게 차이가 있게 하사하였다. 奚의부장 勃魯恩과 王郁 그리고 回鶻·新羅와, 吐蕃·党項·室韋·沙陀·烏古 등은 (발해)정벌에 공이 있었다고 하여 특별히 상을 더하여 주었다(《遼史》권 2, 本紀 2, 太祖 下, 天顯 원년 2월).

14) 韓圭哲, 앞의 책, 130~131쪽.

신라의 사신파견 시기에 대해서 金毓黻이나 酒寄雅志는 924년 경으로 본다.  
金毓黻, 위의 책 참조.

酒寄雅志, 앞의 글, 32쪽.

위의 기록은 신라가 거란의 발해공격을 도와 주었기 때문에 거란 태조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遼史》 사이의 일치되지 못한 기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신라가 과연 거란의 발해공격에 참가하였을까 하는 것과, 참여하였다면 그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신라의 국내사정으로 보아 신라는 거란의 침략을 지켜보고만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 역시 거란을 돋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일지라도 신라가 거란의 발해공격에 참가하였을 것이라는 견해<sup>15)</sup>도 있으며, 적어도 신라가 발해를 멸망시키려는 거란을 지원하였다는데에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라가 발해의 멸망 과정에서 발해의 도움 요청에 응했다고 하는 사실과, 결국 신라가 발해를 돋지 못하고 침략자 거란을 도왔다고 하는 사실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즉 왜 신라는 후삼국 대립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해의 원조 요청에 돋겠다는 약속을 하였는가 하는 점과, 결과적으로 신라가 발해를 돋지 못하고 무력적이건 방관자적 입장에서건 침략자였던 거란을 도왔는가 하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신라가 발해의 인접국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인접국으로서 신라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後梁(907~922)이나 後唐(923~936) · 奚 등이 발해가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라와 발해의 역사적 관계가 일정하게 반영되어서 ‘신라제국’이 발해를 도울 수 있는 나라로 기록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신라는 발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신라가 발해를 물리적으로 돋지 못하였던 원인은 신라 내부의 혼란에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의 발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남북국이 200여 년에 걸쳐 정치적 긴장과 대립을 유지하였던 결과로 남북국을 형성하던 7세기 말엽보다 공동체 의식이 훨씬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남북국이 교섭하였던 시기는 발해의 건국과 멸망, 그리고 신라의

15) 宋基豪, 〈발해 멸망기의 대외 관계—거란 · 후삼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韓國史論》17, 서울大, 1987), 21~26쪽.

귀족항쟁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양국은 서로가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매우 불안한 때였다. 반면에 남북국이 대립하였던 시기는 서로가 안정된 시기 내지 전성기에 해당하는 때였다. 이러한 면에서 양국교섭의 한계를 지적한다면, 신라는 그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해와 교섭을 시도하였고, 발해는 고구려 멸망에 대한 신라와의 감정 대립으로 인하여 안정이 아닌 위기하에서 주로 신라와 교섭을 시도하였다. 또한 두나라는 각기 당과 일본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남북교섭은 그들의 필요에 의한 차선책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신라와 발해가 문화적 이질성이 심화되고 대립 현상이 고착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韓圭哲〉

## 2. 당과의 관계

### 1) 발해 건국 초기의 양국교섭

발해는 唐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빈번하게 접촉하였다. 발해가 신라와 5차례, 일본과는 34차례 교섭이 있었던 데 비하여, 당과는 무려 100여 차례가 넘는 교섭기록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은 기록만을 죽어 본 것이고 주로 발해 사신이 당에 파견되었던 것이 중심이지만, 양국의 관계가 신라나 일본과 달리 밀접한 관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양국은 전쟁을 포함해서 ‘朝貢’외교로 표현되는 정치·경제·문화적 교섭을 빈번히 하였기 때문이다. 왕조간의 교섭 의미를 횟수만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빈번한 접촉은 곧 두 나라간의 이해관계가 긴밀했었다는 하나의 방증일 것이다.

양국간의 교섭은 발해의 건국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고구려유민들의 부흥운동이 당의 방해를 받고 있었고, 이를 물리치고 발해가 건국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멸망 후 당의 燕州(현 朝陽)에 끌려가 살고 있던 일부 고구려유민들은 696년 거란 추장 李盡忠 등이 반기를 들고

영주도독 趙翻를 살해하자 이를 계기로 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발해를 세웠다. 이 때 이른바 대조영의 아버지라는 乞乞仲象은 당으로부터 ‘震國公’에 책봉되어 회유를 받았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추격해 오던 당의 거란 출신 장군 李楷固를 天門嶺에서 크게 물리치고<sup>1)</sup>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였다. 30년만에 ‘고씨 고구려’에서 ‘대씨발해’로 그 역사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당의 추격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대조영은 국가를 세우고 돌궐과 신라 등에 사신을 파견하여, 발해의 건국 사실을 알리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당에 대한 공동대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신라로부터 대조영이 신라의 제5품 관등을 받음으로써 신라와 당이 다시 연합하지 않는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은 705년 발해 건국을 기정 사실화하고 발해와의 관계를 점차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당은 中宗의 즉위와 함께 사신 張行岌을 보내어 화해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조영도 그 아들 大門藝를 속위로 당에 파견하는 등 당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꾸었다.

당의 조정으로부터 ‘靺鞨’로만 불리웠던 발해는 713년 대조영이 “渤海郡王忽汗州都督”으로 책봉을 받음으로써, 이 때부터 辰國 대신에 ‘渤海’라 불리워지게 되었다.<sup>2)</sup> 그러나 당시의 양국관계는 많은 한계가 있었으니 대조영에 대한 당의 인식은 ‘발해국왕’이 아닌 ‘발해군왕’이었다. 발해가 신라와 대등하게 국왕으로 인정받았던 시기는 당나라가 安史의 亂 등으로 발해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였던 발해 문왕 大興 26년(762)에 이르러서였다.<sup>3)</sup>

1) 天門嶺의 위치에 대해서는 張廣才嶺說(丁謙), 承德縣 西境說(《滿洲源流考》), 輝發河와 琿河의 분수령인 長嶺子附近說(松井等)이 있다(張昌熙, 〈天門嶺地理位置之我見〉, 《延邊大學學報》, 1983-3 및 松井等, 〈渤海國の疆域〉, 《滿洲歷史地理》 1, 1913).

2) 발해는 건국 초기에 ‘振國’이라 하다가 곧 ‘渤海’로 국호를 바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은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渤海傳의 “이로부터 비로소 靺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渤海로만 불렸다”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마치 당나라가 발해의 국호를 ‘靺鞨’에서 ‘渤海’로 고쳐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3) 《舊唐書》 권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渤海靺鞨.

## 2) 양국의 전쟁과 교섭

발해와 당의 대립관계는 급기야 양국이 전쟁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다. 양국의 전쟁은 표면적으로 당과 黑水靺鞨의 접근으로 빚어진 외교적 대립관계에서 야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해와 당의 전쟁 배경에는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가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양국이 전투를 벌이는 이유가 되었던 당과 흑수말갈의 접근에 관한 외교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발해는 대조영이 사망하자 719년 그의 아들 大武藝가 왕위를 이어받아 즉위하였다. 그는 즉위한 후 父王의 외교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아 ‘仁安’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대조영의 시호를 高王이라 하는 등 독립국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의 연호 및 시호 사용에 대하여 당에서 “사사로이”<sup>4)</sup> 취한 정책이었다고 언짢아 하고 있는 테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당으로부터 ‘渤海郡王 忽汗州都督’이라는 책봉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조영이 받은 책봉과 같은 것이었으며 이 역시 ‘국왕’이 아닌 ‘군왕’으로서였다. 그러나 대무예는 발해의 독자성을 지켜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고구려 영역의 수복정책에도 힘을 쏟았다. 이러한 사실은 대무예가 즉위한 후 3년째가 되던 721년에 신라가 何瑟羅道(강릉)지방의 장정 2천 명을 징발하여 북쪽 경계에 긴 성을 쌓았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북경지역에 대한 축성을 발해의 대외팽창을 경계하고 이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대무예의 대내외정책은 고구려 고토희복을 의식하였음인지 매우 강력하였다. 한편 당은 그들의 회유를 물리치고 건국한 발해국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럴 수 있었던 현실적 배경은 8세기초에 이르러 강력하게 저항하여 오던 默啜의 突厥과 奚, 契丹 등이 당나라의 끈질긴 변방 토벌정책에 의해 그 위세가 잠시 꺾이었기 때문이다.<sup>6)</sup> 아울러 당과 고구려의 관계에서도 그러했

4) 《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5) 《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20년 7월.

6) 《新唐書》권 215 下, 列傳 140 下, 北狄 突厥 下.

듯이 당의 입장에서 발해는 당의 제국 질서에 편입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발해와 당이 충돌하게 되었던 계기는 흑수말갈을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에서 비롯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舊唐書》 발해말갈전과 《新唐書》 발해전에 전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26년에 흑수말갈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자 당 玄宗이 그 땅을 黑水州로 삼아 長史라는 관리를 두고 사신을 파견하였다. 발해의 무왕이 ‘黑水가 우리 국경을 거쳐서 처음으로 당과 서로 통하였다. 지난날 돌궐에게 吐屯의 職을 청할 적에도 모두 우리에게 먼저 알리고 함께 갔는데, 이제 뜻밖에 바로 당에게 벼슬을 청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우 大門藝 및 그의 장인 任雅를 시켜 흑수를 치게 하였다. 명령을 받은 대문예는 일찍이 볼모로 당의 京師에 갔다가 開元初에 돌아온 바 있는데, 흑수를 치는 것은 당을 저버리는 것이고 당의 군사력이 발해보다 1만 배나 되며, 심지어 발해의 인구는 당과 싸워 이기지 못하였던 고구려의 몇분의 일도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흑수공격의 불가를 간하였다. 그러나 무왕은 듣지 않았으며 대문예가 출병하면서도 다시 간하자 무왕은 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고, 이에 대문예는 당으로 도망하였다. 대문예를 맞은 당 현종은 그에게 左驍衛將軍을 제수하고 보호하였다. 이에 무왕은 사신을 당에 보내어 대문예의 죄상을 말하며 죽이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대문예를 몰래 安西로 보내고 무왕에게 嶺南으로 유배하였다고 거짓 알려왔다. 이 일은 곧 누설되어 무왕이 크게 노하여 당에 항의하였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무왕은 仁安 14년 장군 張文休를 보내어 登州(山東省 蓬萊)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현종도 대문예를 幽州(北京)에 보내어 발해군을 치게 하고, 이어 太僕員外卿 金思蘭으로 하여금 신라로 가서 군사를 내어 발해의 南境을 치게 하였다. 신라는 마침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데다 눈이 한길이나 내려서 병사들이 태반이 얼어 죽어 戰功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 갔다고 한다. 무왕은 다시 원한을 풀기 위하여 몰래 東都에 使者를 보내어 刺客을 시켜 대문예를 죽이도록 하였으나 끝내 실패하였다고 한다.<sup>7)</sup>

日野開三郎, 〈突厥黙啜可汗の興亡と小高句麗國〉(《史淵》75, 1958; 《小高句麗國の研究》, 三一書店, 1984 참조).

오랫동안 돌궐의 간섭을 받아오던 흑수말갈이 돌궐의 세력약화를 기회로 당과 교섭하려 하자, 위험을 느낀 발해가 흑수말갈을 치려고 하였지만 동생 대문예가 항명하고 당으로 망명하였다. 무왕은 대문예를 비호하던 당을 응징하기 위하여 산동반도의 등주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이 발해를 막기 위하여 신라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발해와 당과의 문제만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발해와 신라의 대립을 당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sup>8)</sup>

발해는 당을 공격함에 있어서 당시 거란 및 돌궐과 당의 대립을 이용하였다.<sup>9)</sup> 즉 730년에 이미 발해는 거란·돌궐 등과 연합하여 당의 북진정책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왕 인안 14년에는 이들의 측면 지원을 받아 당을 공격할 수 있었다. 8세기 동아시아에서 당의 북방정책은 당 중심의 *天下觀*에 입각한 *華夷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비하여, 발해와 거란은 당에 대항하여 하나의 연합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돌궐을 중심으로 한 대당 연합세력들의 대내외 관계는 돌궐의 흥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즉 716년 默啜可汗이 鐵勒을 정벌하던 중 전사하여 돌궐의 힘이 약화된 시기에 발해와 거란은 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어서 毗伽可汗에 의하여 돌궐이 부흥되면서부터 돌궐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발해·거란이 연합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당은 돌궐을 중심으로 한 대당 연합세

7) 《舊唐書》 권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渤海靺鞨.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8) 이 때 있었던 발해와 당의 외교적 분쟁사건에 대해서 일본학자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국제적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발해와 당의 충돌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 한편 중국학계에서는 당에 대한 공격을 반대하여 망명하였던 大門藝를 '민족단결'의 대변자로 옹호하는 '統一的 多民族國家' 논리에 입각한 글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중국학계의 일반적 분위기가 발해사를 당의 지방정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학계의 연구는 다만 북한에서 대문예를 발해의 '반역자'로 취급하면서 당시 발해와 당이 충돌하게 되었던 국제정세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1994, 184~185쪽 참조).

9) 金毓黻, 〈叢考〉(《渤海國志長編》 권 19, 華文書局,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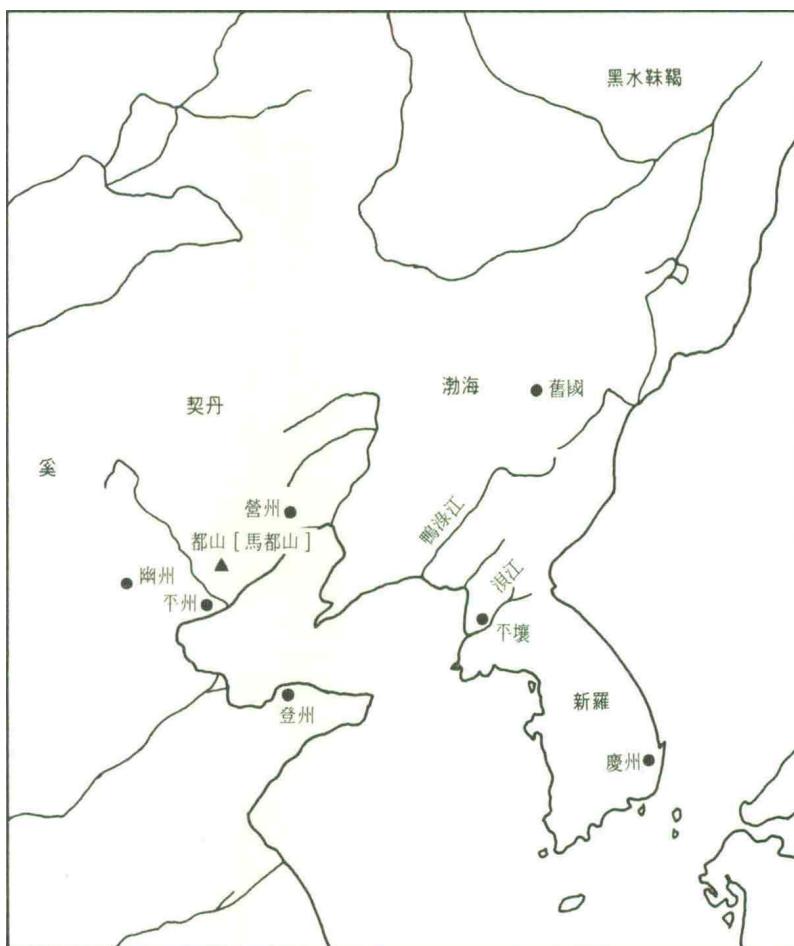
日野開三郎, 〈突厥毗伽可汗と唐・玄宗との對立と小高句麗國〉(《史淵》 79, 1959; 앞의 책).

古畑徹, 〈唐渤海紛爭の展開と國際情勢〉(《集刊東洋學》 55, 1986).

韓圭哲, 〈의 책, 185~186쪽.

력의 힘이 이완되었을 때에는 혼인정책 등으로 동북 여러 주들을 회유하는 한편 군사적 정벌을 통하여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발해는 돌궐세력이 약했을 때에는 당에 접근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구려 영토회복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병합정책을 추진하였다. 신라는 발해의 이러한 남진 정책에 맞서 何瑟羅道에 성을 쌓기도 하였다.

발해와 당의 전쟁



무왕 인안 14년 발해의 당에 대한 공격을 측면에서 지원했던 세력으로는 돌궐·거란·奚가 있었다. 특히 발해가 당을 공격할 즈음에 발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은 거란이었다. 거란은 717년 萝州都督府가 복구되고 이어 平盧郡節度使가 설치된 후 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726년에는 거란 松漠王 李邵固(李邵固)가 당으로부터 廣化王으로 책봉받기도 하였다.<sup>10)</sup> 그러나 730년 5월 衛官 可突汗이 그의 왕 이소고를 죽이고 해의 무리와 함께 돌궐과 연합하자, 거란은 당의 幽州節度使 趙含章의 공격을 받았다.<sup>11)</sup> 이어 돌궐과 거란은 732년 3월에 유주 일대에서 당군의 공격을 받고 패하여 유주가 당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기도 하였다.<sup>12)</sup> 따라서 732년에 있었던 거란과 당의 전투는 발해가 당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특히 유주지역이 당의 세력권에 들어 있었으므로 발해와 당은 지리적으로 더욱 가까이 접하게 되었다.

발해가 당을 공격하게 된 다른 이유는 발해와 신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발해가 신라와의 대립을 의식한 나머지 그 지원세력인 당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730년경 신라와 당은 이전의 대립 내지 소원한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해는 당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라와 당의 접근을 보다 가속화시켜, 발해와 신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과 전쟁을 감행하였다. 발해의 등주 공격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발해가 당보다 신라를 더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왕 인안 9년(727)에 발해 역사상 최초로 高齊德 등을 일본에 파견했던 사실에서도<sup>13)</sup> 짐작할 수 있다.

10) 《舊唐書》 권 8, 玄宗 上, 開元 14년 정월 계해.

11) 《舊唐書》 권 8, 玄宗 上, 開元 18년 5월.

12) 《資治通鑑》 권 213, 唐紀 29, 玄宗 開元 20년 3월.

이 때 奚는 당에 항복하였다.

13) 《續日本紀》 권 10, 聖武天皇 神龜 4년 9월.

특히 발해의 일본에 대한 사신파견에 관해서는 일본의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는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원인을 발해가 일본을 당의 견제세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라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로 점차 바뀌고 있다. 당시 발해의

### 3) 전쟁의 경과와 신라·발해의 대립

발해와 당의 전쟁은 무왕 인안 14년(732) 9월 張文休 등을 해상으로 보내어 당의 登州를<sup>14)</sup>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에 발해는 돌궐의 원병을 얻어 당을 공격하던 거란을 도와 遼西지방의 馬都山(都山)까지 공격하기에 이르렀다.<sup>15)</sup> 발해와 당의 마도산전투는 발해가 등주 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발해가 당시의 국제정세를 잘 이용하여 당을 공격하였다 는 점, 즉 발해와 당 사이의 전투가 단순히 발해와 당의 관계만이 아닌 돌궐·거란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발해가 당을 공격하게 되었던 직접적 원인이 대문예의 망명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근본적 원인은 발해와 신라의 대결관계에 있었다.

등주를 공격한 장문휴는 登州刺史 韋俊을 살해하고 그 곳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였다. 당나라도 이에 맞서 左領將軍 蓋福順(葛福順) 등으로 하여금 발해를 치도록 하였으나 이들이 등주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해의 군대는 철수한 뒤였다. 그리고 당은 대문예를 유주에 보내어 군사를 징발하여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당은 그 곳에 와있던 신라인 金思蘭까지도 귀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치도록 요구하였다.<sup>16)</sup> 이것이 발해와 당나라의 관계에 신라가 개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그러나 발해와 당의 전쟁 결과 양국의 대결이 더욱 심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

---

대일 교섭이 결코 당 중심의 제국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를 의식한 것이 발해의 일차적인 대일교섭 목적이었다는 것이다(韓圭哲, 앞의 책, 187쪽 참조).

14) 박영해는 발해가 바닷길로 登州와 莱州를 불의에 공격한 것으로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박영해, 〈발해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역사과학론문집》 12, 1987, 196쪽).

15) 《資治通鑑》 권 213, 唐紀 29, 玄宗 開元 21년 정월 정사.  
《新唐書》 권 136, 列傳 61, 李光弼 附 烏承玼.

박영해, 위의 글, 195~196쪽.

古畠徹, 앞의 글(1986a), 20~22쪽.

16) 《舊唐書》 권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渤海靺鞨.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해와 신라의 대결이 심화되었다는 데에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있다. 신라는 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해에 대한 공격에 나섰고, 그 이후에도 당과의 연합이 아니라 신라 단독으로 발해를 공격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三國史記》 신라본기와 金庾信傳에<sup>17)</sup> 의하면 성덕왕 32년(733) 7월 김사란이 당의 명을 받고 귀국하여 같은 해 겨울 김유신의 손자였던 金允中·金允文 등 4명의 장군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당병과 만나 발해의 남쪽 경계를 치게 했지만 악천후로 실패하였다. 다음해 2월 당에 있던 숙위 金忠信(信忠)이 현종에게 글을 올려 다시 한번 발해 토벌의 명령을 신라에게 내려 줄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다. 그러나 두 번째의 신라 출병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이를 계기로 하여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는 성덕왕 34년 정월에 金義忠이 당에 새해 인사를 하는 것으로서 양국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의충이 당에 갔을 때 당의 신라에 대한 태도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신라가 실질적으로 그 지배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濘江 이남에 대한 지배권을 비로소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 때부터 신라는 한반도에서 당을 축출하기 위한 전쟁 이후 지속되었던 당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과거 무열왕대와 같은 상호 협조관계로 복귀하게 되었다.

성덕왕 32년 신라에 대하여 당이 군대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자 그 해 12월에 신라에서 당에 謝恩使를 보냈다. 이 때의 사은사 파견은 일종의 외교적 의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가 당에 '사은사'를 파견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당시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고 싶어했던 사실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듬해 정월 성덕왕의 사촌 동생으로 726년에 당에 賀正使로 갔다가 숙위로 머물러 있던 김충신이<sup>18)</sup> 발해를 비난하면서 신라가 발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 현종에게 글을 올렸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치 신라가 당과의 비밀협상을 통하여 백제와 고구

17)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32~35년 및 권 43, 列傳 3, 金庾信 下.

18) 金忠信은 성덕왕의 弟弟였으며 경덕왕 16년(757)의 漢化정책을 주도하였던 金信忠과 동일인이라고도 한다(金壽泰,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邕〉, 《歷史學報》99·100, 1983, 22쪽 및 申澤植, 〈新羅 中代 專制王權의 展開過程〉, 《統一新羅史研究》, 三知院, 1990, 138쪽 참조).

려를 공격하기로 하였던 김춘추의 대당 비밀외교를 연상시킨다.<sup>19)</sup> 그러나 이 때는 신라와 당 사이의 비밀협약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신라가 그 때와는 달리 당과 연합작전을 도모하지 않고 신라 단독으로 발해를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는 그 때까지 발해 공격의 명분을 어떻게든 찾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발해 공격의 의지가 강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대당 외교가 발해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반증이며, 이 사실은 이 사건 이후 발해와 당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발해와 신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신라는 성덕왕 31년 이전에도 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당의 관계는 일시에 개선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당나라가 과거 신라와 당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즉 당의 침략 거점이었던 安東都護府를 신라를 비롯한 삼국민이 평양에서 요동지역으로 쫓아내었던—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까지 당이 신라를 경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폐강 이남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성덕왕 34년에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발해를 공격하였던 사건 이후에야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당의 현실적 대외문제로서, 돌궐 등과 대치하고 있던 당으로서는 외교의 비중을 신라보다는 돌궐과 거란에 더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이 북방의 여러 민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위협을 없애고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돌궐과 거란·발해·신라의 순으로 대외정책의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으므로,<sup>20)</sup> 당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신라는 소홀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와 당과의 관계는 신라의 대당접근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당은 흑수말갈사건으로 인하여 발해와 불편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해가 숙위를 파견하겠다는 요청에 동의하였다.<sup>21)</sup> 따라서

19) 《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진덕왕 2년 및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7 월의 薛仁貴 편지 참조.

20) 古畠徹, 앞의 글(1986b), 98~100쪽.

21) 흑수말갈사건 이후 발해가 당을 공격하기까지 즉 927년부터 932년 이전에 신라의 對唐 사신파견은 7차례였고, 발해의 대당 사신파견은 15차례 정도였다. 특히 발해는 武王의 동생 大寶方·大胡雅·大琳 등 왕족들을 당의 숙위로 많이 파견

성덕왕 31년 이전 신라의 대당 접근은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양국관계가 삼국 통일전쟁 당시의 협력관계로 회복된 것은 발해와 당의 전쟁을 계기로 하여 신라와 당이 발해를 협공하면서부터였다고 하겠다.

신라의 삼국 통일전쟁 당시의 협조적인 양국관계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발언은 당으로부터 먼저 나왔다. 당나라가 신라에 발해를 쳐야 할 장수로서 김유신의 후손인 김윤중을 지명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것은 신라와 당의 연합에 의한 백제와 고구려 정벌에 대한 추억을 신라에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의 이와 같은 태도는 발해의 고구려 계승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결국 발해를 견제하려는 신라와 당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 양국은 7세기에 그들이 연합하였던 상황 수준으로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라와 당 두 나라의 관계개선은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韓圭哲〉

### 3. 일본과의 관계

#### 1) 발해 건국 초기의 양국교섭

발해와 일본은 東京 龍原府의 한 곳으로부터 일본까지를 잇는 日本道가 있었다고 중국측에 기록될<sup>1)</sup> 정도로 공식적인 교섭이 빈번하였다.

하는 등 대당외교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다(金毓黻, 〈大事表〉, 앞의 책, 권 7 및 王承禮 저, 宋基豪 역, 『발해의 역사』, 翰林大 아시아文化研究所, 1987, 155~171쪽). 무왕이 자기 동생들을 이렇게 당의 숙위로 파견한 것은 자기의 정치적牽制勢力を 제거하기 위한 内政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겠지만, 이와 함께 당과의 교섭을 중요시하고 있었다는 증거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1)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발해 사신의 출발지는 동경 용원부의 한 항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중국 길림성 珲春의 八連城으로 보고 있으며, 도착지는 일본의 出羽國 내지 能登

남북국시대에 발해와 일본의 관계는 신라보다 더 빈번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발해가 일본에 34차례, 그리고 일본이 발해에 13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續日本紀》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三國史記》가 신라 1,000년의 역사를 다루면서 일본에 10차례밖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물론 일본측의 《속일본기》등은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 관하여 이보다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신라가 일본에 24차례, 일본이 신라에 24차례 교섭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2)</sup> 물론 일본측의 신라와의 교섭은 발해와 일본처럼 왕조대 왕조의 접촉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섭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왕조간의 교섭만을 본다면 남북국시대의 228년 동안 발해와 일본은 신라보다 긴밀한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발해가 일본에 처음 사신을 파견한 것은 발해 武王 仁安 9년(727)으로, 이 때 발해 사신 寧遠將軍 郎將 高仁(高仁義)과 高齊德 등 24인이 일본에 파견되었다.<sup>3)</sup> 이들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蝦夷에 표착하였다가 고인 등이 해를 당하고 다만 고제덕 등 8인만이 살아 남아서, 같은 해 9월에 出羽國에 상륙하였고 12월에는 일본수도 나라(奈良)에 도달하였다. 다음해 정월에는 聖武天皇을 만나 발해의 國書와 信物을 전하였다. 고제덕 등은 일본 방문에 대한 답으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正六位上의 관작과 함께 帛·綾·紈·綿 등의 비단류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신년하례가 끝난 뒤 초대되어 雅樂을 듣기도 하였으며, 발해왕에게 보내는 교서를 가지고 4월에 귀국할 때에는 引田蟲麻呂로부터 발해까지 전송을 받기도 하였다. 발해와 일본의 교섭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대체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sup>4)</sup>

---

국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발해 사신의 출발 항구와 관련하여 혼춘에서 가까운 지금의 연해주 포시예트항이 주목받고 있다.

2) 山田英雄, 《日本史料集成》(平凡社, 1956), 67~69쪽의 「遣新羅使年表」 및 「新羅使年表」 참조.

3) 《續日本紀》 권 10, 聖武天皇 神龜 4년 9월 경인.

4) 그렇지만 발해의 일본에 대한 교섭이 흑수말갈사건으로 인한 발해의 당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둔 조처였다는 해석도 있다(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1994, 187~188쪽).

발해와 일본의 교섭은 이후 십여 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발해는 文王 大興 3년(739) 일본에 두번째 사신으로 忠武將軍 胥要德·雲麾將軍 已珍蒙 등을 보냈는데 이 때에 일본의 朝唐使 平群廣成도 함께 동행하였다. 이들 가운데 서요덕은 바닷물에 빠져 죽고 이진몽·평군광성 등만이 출우국에 상류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일본 수도에 들어가 발해의 국서와 선물을 전하였으며 다음해 정월 7일에는 일본 천황으로부터 답례품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진몽은 渤海樂에 대해서 일본측에 설명하기도 하였고 활쏘기대회를 참관하는 등 문화교류도 활발히 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일본측 大伴犬養의 전송을 받으면서 귀국하였다.

이와 같이 발해가 두번째로 사신을 파견한 것은 일본과의 첫 교섭 이후 12년이 지난 때였다. 제3대 문왕은 그의 시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왕과는 달리 文治를 통하여 발해의 질서를 유지하려던 왕이었다. 발해의 중앙정치기구와 지방제도 및 왕실제도가 비로소 체계적으로 확립된 시기가 바로 문왕 대였다. 그가 재위한 기간은 발해의 다른 어느 왕보다도 긴 56년간이었는데, 오랜 재위기간을 통하여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발해가 일본에 다시 사신을 파견한 것은 문왕의 대외적 유화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문왕은 당파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보였던 것과 같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사신파견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발해가 일본에 세번째로 사신을 파견한 것은 문왕 대홍 16년으로, 輔國大將軍 慕施蒙과 일행 75명을 보낸 것이다. 두번째 사신파견으로부터 13년째가 되던 해였다. 그러나 당시 발해의 대일 교섭태도는 이전과 다른 면이 있었다. 발해왕의 국서를 갖고 가지 않아 일본조정으로부터 억류될 뻔하였으며 다음해 6월 그들은 일본의 전송사신 없이 귀국하였다. 양국간에 처음으로 사신의 파견과 접대에 있어서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이다.

## 2) 발해와 일본의 신라협공계획과 양국교섭

발해의 대일 사신파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양국간의 접촉은 한동안 소원

하였다. 이러한 소원한 관계를 깨뜨리고 두 나라가 적극적인 교섭을 하게 된 계기는 일본의 신라 공격계획이었다. 일본이 먼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양국의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양국의 사신왕래는 모두 발해가 먼저 파견한 것이었다. 다만 일본은 발해 사신의 귀국 때 送使를 2차례 파견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먼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신라를 협공하기 위한 그들 자신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발해의 제4차 대일 사신파견은 일본에 대한 담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던 셈이다.

일본은 이른바 일본의 「新羅征討計劃」(758?~764)을<sup>5)</sup>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발해를 끌어들이려고 먼저 발해에 사신을 보냈다. 문왕 대홍 22년(758; 일본 天平寶字 2)에 양국간에 사신이 오고 갔다. 그 때 발해에 온 일본 사신은 과거 신라에 파견되어 신라왕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갔던 小野田守였다. 일본은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그들의 신라정벌을 실천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太宰府에 명하여 行軍式을 만들게 하였는데 장차 신라를 정벌하려는 것이다(《續日本紀》 권 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 6월 임자).

② 배 500척을 北陸道의 여러 나라에서 89척, 山陰道의 여러 나라에서 145척, 山陽道의 여러 나라에서 161척, 南海道의 여러 나라에서 105척으로 나누어 한가한 달에 만들되, 3년 이내에 마치도록 하였는데 신라를 정벌하기 위한 것 이었다(《續日本紀》 권 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 9월 임오).

위의 내용대로라면 일본이 신라를 정벌하려 했던 것은 적어도 759년 이전

5) 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史學雜誌》35-11, 1924).  
 鳥山喜一, 〈渤海王國と日本との交渉〉(《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241~253쪽.  
 石井正敏, 〈初期日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新羅征討計劃との関連をめぐって—〉(《史學論集 對外關係と政治文化》1, 吉川弘文館, 1974).  
 酒寄雅志, 〈八世紀における日本外交と東アジア情勢—渤海との関係を中心として—〉(《國史學》103, 1977).  
 ———,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政治文化〉(《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1979).  
 金恩淑,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國史館論叢》29, 國史編纂委員會, 1991).  
 韓圭哲, 위의 책, 197~211쪽.

이었다. 일본이 신라를 정벌하려 했던 758년부터 764년 사이의 발해와 일본 간의 사신왕래는 매우 빈번하였다. 일본은 758년에 小野田守 등을 발해에 파견하였고 발해는 이에 대한 답방으로 같은 해 9월에 揚承慶 등을 일본에 보냈다. 이듬해에도 일본이 高元度 등을 발해에 파견하자 발해는 高南申·高興福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고, 760년에 일본이 고남신 등의 발해 사신을 전송하는 陽侯玲璆 등을 발해에 보내는 등 왕래가 계속되었다. 761년에도 일본은 高麗大山 등을 발해에 파견하였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 발해는 문왕 대홍 26년(762)에 王新福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듬해에도 일본은 왕신복 등의 발해 사신을 전송하는 板振鎌束 등을 보냈다.<sup>6)</sup>

이후 771년에 발해가 일본에 파견한 壹萬福·慕昌祿 등을 3년 뒤에 돌아왔다. 이처럼 양국 간의 외교 재개는 발해가 먼저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이루어졌다.<sup>7)</sup>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무왕 9년(727)부터 대인선 14년(919)까지 34차례였다. 그런데 발해가 먼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경우가 30차례였고, 나머지 4차례만 일본이 먼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었는데,<sup>8)</sup> 그 중 3차례가 바로 일본의 신라 정벌계획이 있었던 시기였다(758·759·761). 또한 이 시기에 일본은 발해의 답방에 대하여 두 차례나 전송사신까지 파견하는 적극성을 보였다(760·763). 그러므로 758년에서 764년까지의 양국의 사신왕래는 일본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그 목적은 발해를 신라 정벌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발해에 대하여 적극 외교를 벌이게 되었던 또 다른 배경은 당에서 일어난 安史의 亂(758~763)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당시에 일본은 소야전수가 당에서 일어난 안사의 난에 관하여 보고하자, 淳仁

6) 金毓黻, 〈叢考〉(《渤海國志長編》 권 19).

王承禮 저, 宋基豪 역, 《발해의 역사》(翰林大 아시아文化研究所, 1987), 178~190쪽.

7) 759~771년까지의 관계기록은 《續日本紀》 권 31, 寶龜 2년 6월 27일·10월 14일·12월 21일 및 권 32, 寶龜 3년 정월 1일·정월 3일·정월 16일·정월 19일·정월 25일·2월 2일·2월 28일·2월 29일·9월 21일, 寶龜 4년 2월 20일·6월 12일·6월 24일·10월 13일.

8) 물론 759년의 대발해 사신파견은 답방을 겸하고 있는 면도 있었으나 일본의 재차 파견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先派遣으로 간주하였다.

천황이 관계 朝臣들에게 그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하도록 명령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sup>9)</sup> 그리고 759년 순인천황이 高元度를 邀入唐使로 삼아 당 長安에서 遣唐使 藤原河清을 맞이하도록 하였다는 점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사의 난에 대한 소식은 일본이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고 난 이후에 얻은 부수적인 수확에 불과하였다. 일본이 발해에 사신을 파견한 목적이 당의 내정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발해에 대한 사신 파견의 1차적 목적은 신라정벌을 위해 발해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는 발해에 보내는 사신으로 소야전수가 발탁되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그는 경덕왕 12년(753)에 신라에 파견되었다가 오만·무례하다고 하여 접견을 거부당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sup>10)</sup> 이러한 전력을 가진 그를 발해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는 것은 일본이 발해와 신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당에 대한 관심 역시 신라를 의식한 외교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신라정벌에 당이 개입한다면 발해의 도움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발해관계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발해는 안사의 난 이후 요동지역 등 변방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영역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제안에 대하여 발해도 초기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발해가 문왕 대홍 22년(758)과 23년에 군사전문가인 武官을 일본에 파견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라 정벌계획에 관한 정보는 신라에도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는 경덕왕 21년 5월에 북쪽 변경지대에 五谷(황해도 瑞興)·鵠巖(鳳山)·漢城(載寧)·瘴塞(遂安)·池城(海州)·德谷(谷山)의 6성을 쌓고 각각 太守를 두었는데,<sup>11)</sup> 이러한 조치는 곧 발해를 의식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9) 《續日本紀》 권 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 12월 무신(10일).  
    鳥山喜一, 앞의 책, 241~249쪽.

10) 《三國史記》 권 9, 新羅本紀 9, 경덕왕 12년.  
    《續日本紀》 권 19, 孝謙天皇 天平勝寶 5년 2월.

11) 《三國史記》 권 9, 新羅本紀 9, 경덕왕 21년.

일본이 신라정벌을 계획하였던 것은 신라조정의 ‘無禮’가 명분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밖으로 이전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시 일본은 신라를 치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동방의 蝦夷문제 해결에 큰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정벌을 계획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밖으로 전이시키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藤原仲麻呂는 권력을 독단하여 惠美押勝이라는 별명을 들고 있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반발세력이 커 정치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sup>13)</sup> 혜미압승은 안으로 전제화를 추구하면서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하여 신라정벌을 꾀하려 하였던 것이다. 혜미압승의 하이와 신라에 대한 군사적 모험은 둘 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으나 특히 신라 정벌계획은 처음부터 정치적 애드벌룬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발해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려 하였다든지, 신라정벌에 대비하여 여러 곳에서 나누어 배를 건조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정치적 애드벌룬 이상의 실천 가능성이 강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신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발해를 끌어들이려고 하였던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라를 정벌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신라협공계획 무산 후의 양국관계

일본과 발해의 신라협공계획은 발해의 도중 하차와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 및 일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발해는 당의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하여 변방의 요동 즉 이른바 「小高句麗」지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처지여서 일본의 신라공격 제안에 대해서 끝까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비록 당의 변방 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발해가 요동

12) 岸俊男, 『藤原仲麻呂』(吉川弘文館, 1969), 261~274쪽.

13)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野村忠夫, 〈奈良時代の政治過程〉(『岩波講座 日本歴史』3), 95~108쪽 참조.

지역의 통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신라를 공격하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무리였던 것이다. 발해는 이미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을, 문왕 대홍 23년(759)의 辅國大將軍 高南申·高興福을 끝으로 무관에서 문관으로 바꾸었다. 즉 대홍 26년에 일본의 사신파견에 대한 答聘으로 紫綏大夫 行政堂省左允 王新福을 파견한 이후 줄곧 문관만을 파견하여<sup>14)</sup> 신라협공계획의 포기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는 일본에 보내는 사신을 문관으로 바꿈으로써 일본의 혜미압승의 반란(764) 이전에 일본과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이미 포기하였던 것이다.

발해가 일본과 함께 신라를 치려던 계획을 포기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발해와 당의 관계개선이었다. 당과 발해의 완충지역에서 일어난 안사의 난을 평정하기 위하여 당은 발해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발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서는 양국의 평화관계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가 결국 발해의 신라공격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당의 발해에 대한 유화책은 안사의 난 이후 문왕 26년에 당나라가 발해왕을 '郡王'에서 '國王'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sup>15)</sup>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발해측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신라공격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계획의 중심인물이었던 혜미압승이 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孝謙천황과 淳仁천황 사이의 세력 분열이 심화되어 순인천황의 배후 세력이자 신라 정벌계획의 입안자이기도 했던 혜미압승이 764년 반란을 일으켜 敗死하게 되자<sup>16)</sup> 일본도 신라 정벌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신라 정벌계획에 따른 발해와 일본 양국간의 우호관계는 758년 小野田守가 발해에 파견된 이후 763년의 板振鎌束의 파견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에 일본은 5차례, 발해는 3차례 각각 상대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특히 일본이 발해에 파견한 14차례의 사신들 중 이 기간에 파견된 사신들이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교섭은 모두 발해가 일본에 먼저 사신

14) 《續日本紀》 권 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 및 권 24, 天平寶字 6년.

15) 《新唐書》 권 219 下, 列傳 144, 北狄 渤海 寶應 원년.

16) 岸俊男, 앞의 책, 382~417쪽.

野村忠夫, 앞의 글, 102쪽.

을 파견하였다. 그 방식은 건국 초기와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 초기의 목적이 정치·군사적인 면이 강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것은 경제·문화적인 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문관 중심의 사신들이 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발해와 일본의 사신왕래표

| 次<br>數   | 出<br>發<br>時<br>期        | 年<br>代            | 氏<br>名                               | 散<br>官<br>位<br>階                | 先,答              | 備<br>考         |
|----------|-------------------------|-------------------|--------------------------------------|---------------------------------|------------------|----------------|
| 日本<br>1  | 渤海<br>武王 仁安 9           | 727               | 高 仁 義(死)<br>首領 高 齊 德                 | 寧遠將軍(武)<br>從 五 下                | 先<br>答           | 黑水靺鞨<br>(신라견제) |
| 1<br>2   | 仁安 10<br>文王 大興 3        | 728<br>739        | 引田蟲麻呂<br>胥 要 德<br>已 珍 蒙              | 忠武將軍(武)<br>雲麾將軍(武)              | 先<br>先           | 上同             |
| 2<br>3   | 大興 4<br>大興 16<br>大興 22  | 740<br>752<br>758 | 大 伴 犬 養<br>慕 施 蒙<br>小 野 田 守<br>楊 承 慶 | 外 從 五 下<br>輔國大將軍(武)<br>輔國大將軍(武) | 答<br>先<br>先<br>答 | 新羅挾攻件          |
| 4<br>5   | 大興 22<br>大興 23<br>大興 23 | 758<br>759<br>759 | 楊 泰 師<br>高 元 度<br>高 南 申              | 歸德將軍(武)<br>外 從 五 下<br>輔國大將軍(武)  | 先<br>答<br>先      | 上同<br>上同       |
| 5        | 大興 24                   | 760               | 陽 侯 玲 瑪                              | 外 從 五 下                         | 答                | 上同             |
| 6        | 大興 25                   | 761               | 高麗大山(死)                              | 從 五 下                           | 先                | 上同             |
| 6        | 大興 26                   | 762               | 王 新 福                                | 紫綏大夫(文)                         | 答                | 上同             |
| 7        | 大興 27                   | 763               | 板 振 謙 東                              | 正 七 位 下                         | 答                | 上同             |
| 7        | 大興 35                   | 771               | 壹 萬 福                                | 青綏大夫(文)                         | 先                |                |
| 8        | 大興 36                   | 772               | 武 生 鳥 守                              | 正 六 上                           | 答                |                |
| 8        | 大興 37                   | 773               | 鳥 須 弗                                |                                 | 先                |                |
| 9<br>9   | 寶曆 3<br>寶曆 4            | 776<br>777        | 史 都 蒙<br>高 麗 殿 嗣                     | 獻可大夫(文)<br>正 六 上                | 先<br>答           |                |
| 9<br>10  | 寶曆 5                    | 778               | 張 仙 壽                                | 獻可大夫(文)                         | 先                |                |
| 10<br>11 | 寶曆 5<br>寶曆 6            | 778<br>779        | 大 綱 廣 道<br>高 洋 弼                     | 正 六 上                           | 答<br>先           |                |
| 12       | 大興 50                   | 786               | 李 元 泰                                |                                 | 先                |                |
| 13       | 康王 正曆 2                 | 795               | 呂 定 琳                                | 匡諫大夫(文)                         | 先                |                |
| 11       | 正曆 3                    | 796               | 御 長 廣 岳                              | 五 六 上                           | 答                |                |

| 次數 | 出發時期    | 年代  | 氏名    | 散官, 位階           | 先, 答 | 備考 |
|----|---------|-----|-------|------------------|------|----|
| 12 | 正曆 5    | 798 | 藏賀茂麻呂 | 外從五下<br>慰軍大將軍(武) | 先    |    |
|    | 正曆 5    | 798 | 大昌泰   |                  | 答    |    |
| 13 | 正曆 6    | 799 | 滋野船白  | 正五上              | 答    |    |
|    | 定王永德 1  | 809 | 高南容   |                  | 先    |    |
| 14 | 永德 2    | 810 | 高南容   | 從六上              | 先    |    |
|    | 永德 2    | 810 | 林東人   |                  | 答    |    |
| 17 | 定王朱雀 3  | 814 | 王孝廉   | 從六上              | 先    |    |
| 18 | 簡王太始 1  | 818 | 慕感德   |                  | 先    |    |
| 19 | 宣王建興 2  | 819 | 李承英   | 從六上              | 先    |    |
| 20 | 建興 4    | 821 | 王文矩   |                  | 先    |    |
| 21 | 建興 6    | 823 | 高貞泰   | 從六上              | 先    |    |
| 22 | 建興 8    | 825 | 高承祖   |                  | 先    |    |
| 23 | 建興 10   | 827 | 王文矩   | 從六上              | 先    |    |
| 24 | 彝震咸和 12 | 841 | 賀福延   |                  | 先    |    |
| 25 | 咸和 19   | 848 | 王文矩   | 從六上              | 先    |    |
| 26 | 大虔晃 3   | 859 | 烏孝慎   |                  | 先    |    |
| 27 | 大虔晃 4   | 860 | 李居正   | 從六上              | 先    |    |
| 28 | 大玄錫 1   | 871 | 楊成規   |                  | 先    |    |
| 29 | 大玄錫 6   | 876 | 楊中遠   | 從六上              | 先    |    |
| 30 | 大玄錫 12  | 882 | 裴頲謀   |                  | 先    |    |
| 31 | 大玄錫 21  | 891 | 王龜謀   | 從六上              | 先    |    |
| 32 | 大玄錫 24  | 894 | 裴璆    |                  | 先    |    |
| 33 | 大謹譏 2   | 907 | 裴璆    | 從六上              | 先    |    |
| 34 | 大謹譏 14  | 919 | 裴璆    |                  | 先    |    |

〈韓圭哲〉